

◎ 특 집 ◎

성결교회의 비상 과제

어둠의 선교 과제

정 진 경

<서울신학대학교수>

한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전해진 19세기는 선교사상 위대한 세기라고 부를 수 있다. 그 이유는 구미 각국의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외국전도운동이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고조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즉 복음이 구미 각국으로부터 아세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세계 구석구석에 전파된 때였다. 이 시대에 외국 선교를 강하게 추진시킨 요인은 부흥운동이었다. 복음에 의하여 구원 받은 기쁨을 되도록 넓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열망에서 시작된 활동이었다. 이런 부흥운동의 배경에는 세가지의 큰 운동을 들수있다 하나는 독일에서 일어난; 경건운동이고 둘째는 영국에서 일어난 감리교운동 셋째로는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이다. 이때부터 외국선교를 위해서 선교회의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가 교파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즉 자기들이 속해 있다는 교파의 교회들 외국에 건설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은 외국 선교의 목적이 자기 교파의 선전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기도 했다. 지난 한세기 동안의 구미 교회의 선교운동을 초대교회의 선교 운동과 비교해서 특색지어 본다면 초시대 교회의 선교는 세계의 변두리였던 유대나라에서 시작되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나 희랍 같은 중앙으로 향하는 전도였다. 그

러나 지난 19세기 이후의 선교운동은 세계의 중심인 유럽이나 미국에서 번 두리 취급을 받는 후진국인 아세아 아프리카 등지로 향하는 전도였다. 또 초대교회의 바울 같은 선교사는 당시의 헬라나 로마 같은 고도의 문화중심지로 들어갈 때 복음 이외는 아무 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었다. 이때는 문화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인 계층에서 생각해도 그리스도교는 노예계급의 하층민으로부터 당시 사회의 상류층을 향해 선교했다. 말하자면 밑에서 위로 향하는 전도였다. 그러나 19세기 이래의 구미 각국의 외국선교는 그리스도교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을 수반하고 문화적으로 미개한 나라에 전도했다. 고로 선교사는 서구문명의 운반자 노릇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복음의 선교와 문명의 선교를 겸하여 한 셈이다. 또 한가지 선교운동에서 특색지을 수 있는 것은 초시대교회와는 달리 19세기에 있어서는 이미 천년 이상 쌓아 놓은 기독교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때의 선교는 이렇게 이미 구축된 기독교세계를 전세계를 향해서 자기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고로 대다수의 선교사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것은 서구의 힘을 선교지에 심는 것이었다. 또 한가지 중요한 특색은 19세기의 구미 각국의 선교는 초대교회와는 달리 그 선교에는 반드시 무력과 금력 그

리고 정치적 권력이 수반하였고 이것이 식민주의와 결부해서 선교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어제의 선교운동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기독교는 그자체에 대한 깊은 반성과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기적인 선교 개념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는 하나의 그리스도교 세계의 종국을 고하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교 세계라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는 전연 다르다. 그것은 조직화된 그리스도교 사회이며 특정의 종교적으로 기초를 놓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체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의 배경에는 언제나 서구의 문화적 우위성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것은 복음을 선전하는 것과 서구의 문명을 선교하는 것을 항상 병행하였다. 그러나 세계제2차대전이 끝난후 그리스도교 선교는 근본적으로 그 개념이나 방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프리카 아세아등 피선교지의 여러 나라들의 민족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식민주의가 무너지게 된 것과 서구 문명의 상대적인 위신의 저하, 쏘련 중공을 비롯한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진출, 그리고 신흥제국의 공업화의 진전등이다. 이러한 모든 요인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종국을 고하는 종소리요 징조였다. 그리스도교와 유럽의 결부 2천년에 걸친 세계 지배

의 종지부를 말하기도 한다. 20세기가 저물어가는 오늘에 있어서의 기독교 선교는 19세기적인 외국전도가 아니라 <세계선교>라는 과제물 안게 되었다. 오늘의 선교는 그리스도교세계의 자기 확장도 아니고 전 세계를 기독교화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 하나가 비그리스도교적 세계 속에 사는 인간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이 일은 그리스도교 세계나 그리스도교 문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멍새지만이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선교와 식민지 주의의 결부는 깨끗이 단절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교 세계와의 대화가 오늘의 전도의 과제이기도 하다. 냉정하게 말한다면 전도의 전선 즉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곳은 방끝 어디나 존재한다. 선교란 문화적 우월성을 배경으로 하여 상대방을 교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를 같이 지고 가는 겸손한 자세로서 같이 배우고 같이 하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고전9:23)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같은 교회만을 위한 전면적으로 단처진 선교 방법은 밖으로 향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안과 밖을 이원적으로 구별하는 태도를 버리고 안과 밖을 동심원(同心圓)에서 보는 눈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교회로 모아 드리는 것만을 위

주로 하던 선교의 방법을 역사의 전선으로 흩어져 나가는 선교의 방법과 병행시켜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고 흩어지는 두 국면이 역동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힘을 안으로 모으는 구심력과 힘을 밖으로 내보내는 원심력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재래의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로 그 개념이 바뀌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선교하기 위한 교회라고 생각할 때는 선교는 선교를 교회에 종속하는 개념으로 받아드리는 것이며 선교는 교회의 한 기능에 불과 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게 되면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형성하는데 있고 선교는 교회형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 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에 교회가 참여한다고 생각할 때는 교회가 선교에 종속하는 개념으로 받아 드려지며 선교의 한 기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사고구조는 교회 선교를 위한 교회이며 교회가 역사 속에 부름을 받은 목적이 선교가 된다. 교로 교회를 위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선교를 위한 교회라고 할 때 엄밀히 말해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 하는 것으로서 그 존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교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인간도 교회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론적 선교는 현대에 있어서의 교회의 사명

은 교회에 맡겨진 불변의 복음을 변하는 시대에 전한다고 하는 적합성(適合性)의 문제로 이해되며 선교론적 이해는 현대에 있어서의 교회의 사명은 변하는 세대 속에서 항상 주권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일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役事)에 참여하는 참가성(參加性)의 문제로 이해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변천하는 역사속에 언제나 어디에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식한 단체이다

그러나 이 세계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 임재를 인식도 못하고 있다. 고로 교회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하여 그를 계시하시는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넓은 불신세계 전체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교회는 이 역사를 자각적으로 받아드려 이에 응답하는 단체이다. 고로 이 세계에 대한 교회의 우위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의 우위성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사명은 아직 그 인식력이 주어지지 아니한 불신세계에 인식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절대적 실존이며 섬기는 종으로서의 실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종래의 이원론적 해석은 극복되고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모

든 세계를 위해 있는 것이 교회라는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며 그리스도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간속에 제한받은 분이 아니요 역사 전체 세상 전체에 그 주권이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현재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곳 즉 그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면 어디나 해당된다 고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몸은 따라다녀야 한다. 과거에는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딴 세계로 여겨왔다. 오늘날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그 이유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교회라고 생각하고 가정이니 직장이니 학교니 하는 우리가 밤낮으로 살며 운동하는 전생활권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종래의 교회는 선교의 방향 감각이 뚜렷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인간 생활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는 센터가 되려면 하나의 조직체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전체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교회구조와 목회 형태 그리고 선교전략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